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정*주
파견국가	스웨덴	파견도시	외레브로
파견대학	외레브로 대학	파견기간	2014.09 ~ 2015.06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외레브로는 스웨덴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외레브로 대학교는 스톡홀름에서 버스로 3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시내에서 학교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학교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 조금 작은 편입니다. 모든 건물이 2~3층이고 화장실은 남녀공용입니다. 학생들이 도서관보다는 학교건물에서 공부를 하고 조모임을 가지는 편입니다.</p>
2014-2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수강 과목: Communication and Rhetoric in English 1, 2 English 1은 영어 문법에 관련된 수업이고, 2~3번 정도 간단한 발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 빼고는 과제나 수업준비를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 대신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English 2는 토론 위주의 수업으로, English 1보다 발표하는 수업이 많고 같은 교수님이 수업을 가르치십니다. English 1과 같이 시험 대신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성적이 나옵니다. International Logistics은 기초 무역에 대한 수업입니다. 조별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3번까지 재시험이 가능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는 International Logistics와 비슷한 수업으로 강의는 따로 하지 않아서 수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과제를 3~4번 제출하고, 조별과제도 따로 해야 합니다. 시험이 없기 때문에</p>

	<p>조별과제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겨울에 여행계획이 있다면, 여행 다니면서 과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목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p> <p>*모든 수업이 출석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세미나나 워크샵을 빠질 경우 보충과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p>
2015-1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수강과목: Swedish language and culture1은 스웨덴 역사나 복지에 대해 배우는 수업으로, 스웨덴어를 배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Marketing sports and events은 스포츠 관련 마케팅에 대한 수업입니다. 두 달 동안 한 과목을 듣는 거라서 수업이 많지 않고, 조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2번 하고 시험을 봅니다. Outdoor education and recreation은 야외활동을 하는 수업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1박2일 캠핑도 가고 크로스컨트리스키, 암벽등반, 승마 등을 체험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하지만 스키대여비, 숙박비 등 따로 약 3000SEK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교수님도 정말 좋으시고 모든 활동도 재미있었습니다. 만약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ESN이라는 학생기관에서 출신국가에 따라 조를 나누고, 대부분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조별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새로 온 교환학생들에게 스웨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교환학생들끼리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체육대회, 1박2일 여행, 시내 관광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각 조마다 Fadder라고 하는 스웨덴 혹은 다른 교환학생들이 있는데, 학기 동안 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봄, 가을에 비가 조금씩 자주 옵니다. 여름에는 해가 굉장히 길어서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밝으며, 별로 덥지 않고 습하지도 않습니다. 겨울에는 하루에 4~6시간 정도 해가 떠있어서 항상 어둡고 추위는 한국과 비슷합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치안은 특별히 나쁜 점은 없고,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일찍 닫기 때문에 밤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집시들이 마트 앞에 앉아 있는데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X)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기숙사는 Studentgatan으로 학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7명 정도가 같이 주방을 사용합니다. 방이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i> <i>외부식당 (X) 직접 요리 (X)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식당에서 사먹을 경우 비싸기 때문에 주로 직접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경우 가격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학교 내에 피자를 파는 가게와 파스타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기숙사가 학교 내에 위치해서 학교건물까지 걸어서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 할 수 있고, 자전거로 시내까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차를 이용합니다. 기차로 스톡홀름까지 두 시간 반정도, 예테보리(스웨덴 제 2의 도시)까지 네 시간 정도 걸립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500,000원	편도로 구매 (한국에서 올 때 약 80만원, 한국으로 갈 때 약 70만원)
Fees	약 400,000원	수업 활동비 (outdoor education and recreation); 숙박비, 식비, 장비 대여 등
보험료	약 27,000원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 구매 (글로벌케어보험)
숙소	약 450,000원	
식비	약 390,000원	
교통비	약 15,000만원 [약 70,000원 + 약 80,000원 (자전거)]	+ 자전거 수리 비용 약 20만원
책값	약 60,000원	책을 살 필요 없음
핸드폰 요금	약 130,000원	한 달에 한 번씩 구매, 데이터나 통화, 문자가 필요 없다면 사지 않아도 됨
여행비용1	약 630,000원	ESN에서 진행, 라플란드 약450,000원 씨배틀 약 170,000원
합계	약 11,8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스웨덴 크로나는 환율우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전을 많이 해오는 것 보다는 환율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씨티은행 없음).
현지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비싼 정도이고, 스웨덴에서는 여름 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비추면 덥고 바람이 불면 춥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을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심칩과 교통카드는 처음에 학교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처음에는 스웨덴이라는 정보도 없는 머나먼 나라에 간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9개월 정도 생활해본 결과,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생각한 것 보다 춥지 않고, 진짜 여름은 약 1달밖에 되지 않아서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새침하고 도도하게 생겨서 안 친절할 것 같지만 말을 걸면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어를 모국어만큼 잘 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유럽여행을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번 교환학생을 계기로 정말 많은 나라에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웨덴은 한국과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 짧은 방학, 또는 학기를 마치고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영미권 국가로 파견되었다면 영어 실력이 조금 더 향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럽 여러 나라에 가볼 수 있고 문화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고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스웨덴으로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웨덴어를 배울 수 있고 스웨덴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스웨덴어를 배우는 수업은 없고, 모든 수업은 교환학생을 온 다른 유럽 학생들과 같이 듣기 때문에 스웨덴학생을 만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 건물



건물 내부



기숙사



오리엔테이션 - 체육대회



아이스 하키 경기 관람



크로스컨트리스키 (수업)